

버라이어티 논픽션 월말 매거진

월간규문 2월호 (2월 28일)

editor's choice

영화 <겨울왕국>

영드 <라이프 온 마스>

Q&M

2014.2

이달의 선물

공부한다면 이들처럼/룩 씻

COOL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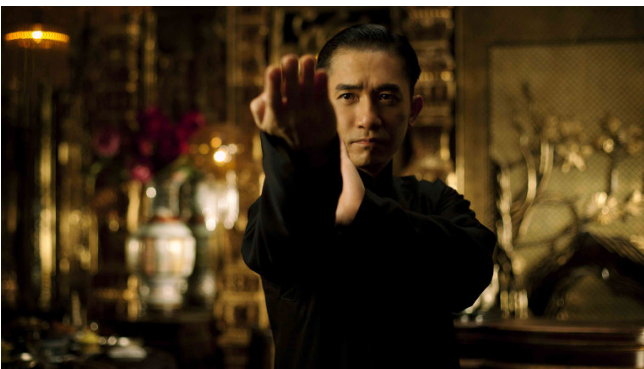
나의 그/그녀를 소개합니다!



이번 달 월간규문의 표지. 왠지 어설픈 가족사진 비슷한 것이 박혀 있군요. 그래요. 우리는 가족이자, 솔로들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겐 솔로 멘탈을 지탱해주는 가디언즈가 있었으니... 이번 달에는 과감하게 고백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맘 속에 품고 있었던 그분들을 말이죠!

규문회원들이 뽑은 나의 그분(들)! 지금 공개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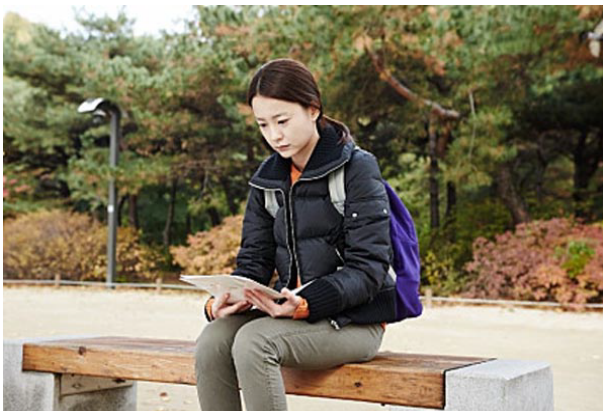
제리의 선택



어떻게 한 사람을 뽑으란 마라.... -_-;

외국 배우는 그의 본명보다 영화 속 이름으로 기억하고, 그 영화를 벗어나면 또렷한 얼굴도 잘 기억 못하는 치명적 약점이 있는 나에게 뚜렷한 이름과 얼굴로 기억나는 사람을 뽑자면...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나를 그윽히 바라보는 그, "**양조위**". 왕가위의 페르소나... 인생의 쓸쓸함을 가장 화려한 시절로 보여주는 재주가 있는 왕가위의 영화를 찬연히 빛내주는 쓸쓸한 얼굴의 양조위.

나의 그녀도 수없이 많지만 양조위를 생각하니 나에게 양조위를 소개한 그녀를 잊을 수 없고나. 배우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었지만 나에게 배우를 기억하게 했던 사람.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난지 어언 10년. 내가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한 것은 노무현 전대통령과 그녀뿐이다. 비디오는 호환마마와 같다고 믿었던 부모님 덕에 영화와 담쌓고 지내던 촌걸의 좁은 세계에 영화라는 서광을 비춰준 그녀는 "**정은임**". 새벽 1시 FM영화음악으로 찾아와 등려군의 노래와 왕가위 감독을 알려준 그녀.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10여년 또는 20여년 전으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이 되고 말았다...



효정의 선택

우리 선희. 최근에야 이 영화를 보았다. 세 남자에게서 착하고 안목이 좋은데 가끔은 또라이 같기도 하다는 엇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는 선희라는 여인. 그런 선희를 연기한 여인, "**정유미**". 나의 '그녀'로 배우 정유미를 꼽은 별다른 이유는 없다.

[우리 선희], [옥희의 영화]에서 떠올랐던 물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 되는가'의 '어떤 사람'을 꼭 것처럼 연기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가 주는 편안하고 무던하면서도 단단한 느낌이 좋았다.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어쩌면 홍상수 감독 영화에 나오는 정유미의 모습을 좋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말간 얼굴이 나는 좋다.



수경의 선택

말론 브란도: 보이지 않아도 어디서나 느껴졌던 godfather의 막강 존재감. 스크린 밖으로까지 페로몬을 분출하던 젊은 브란도보다는 배 나오고 세 턱 된 브란도가 난 더 좋더라~

마르첼로 마스트로안니(사진): 이탈리아 남성애에 대해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로망의 집대성. 개인적으로는 <8과 1/2>에서 분열증 앓는 영화감독을 최고로 꼽고 싶다.

헬레나 본햄 카터: 뭐 이렇게 퇴폐적이면서 고전적인 미녀가 다 있담!

버스터 키튼: 그는 저어기 먼데서 굴러도 관객들 시선을 한눈에 잡아끈다. 무표정하지만 사랑스러운 그 큰바위얼굴(>.<) 내게 흑백+무성+슬랩스틱은 채플린이 아니라 버스터 키튼이 원체힘이다.

제임스 스페이더: 요즘 방영 중인 미드 <블랙리스트>를 보고 다소 놀랐지만, 그래도 내게 스페이더는 언제까지고 꽃청년. 유리같이 섬세한 턱에 푸른 눈을 한, 사연 있고 사려 깊은 아름다운 청년.

아사노 타다노부: 훌꺼풀의 긴 눈이 매력 포인트. 여백이 많은 배우라 한 작품 안에서 카메라가 그 앞에 멈출 때마다 긴장을 풀고 미소 짓게 된다. 소위 연기파 배우들은 지닐 수 없는 미덕.

이자벨 아자니: <아델. H> <까미유 끌로델> <포제션> <여왕 마고> 등등에서 본 그녀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미친년, 세상에 다시없을 미친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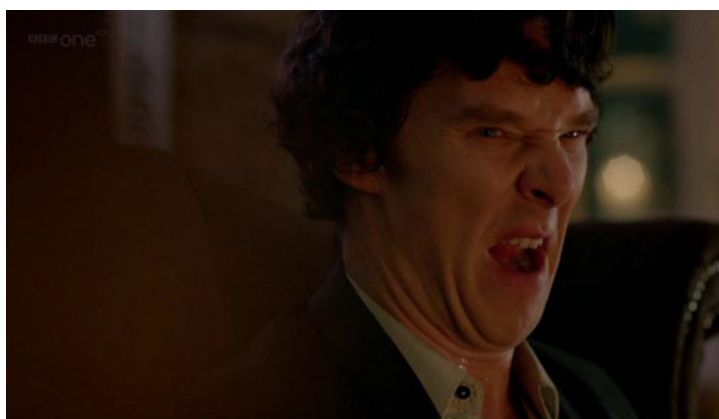
이자벨 위페르: 프랑스 여배우의 위엄. 얇은 피부 위에 흩뿌려진 주근깨와 앙다문 얇은 입술은 표정의 격변 없이도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서정: 짹짹 들어찬 이목구비로 갑갑한 미녀들 사이에서 저 홀로 눈(雪)처럼 움직이는 존재. 색조 메이크업 없는 얼굴이 훨씬 아름답다.

해원의 선택

베네딕트 컴버배치! 별명은 베니, 우주오이 등등. <셜록>을 시작으로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스타트렉 다크니스>, <호빗>, <노예12년> 등 최근 화제작의 주조연급은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된 얼굴이 길고 턱이 여섯 겹이고 목소리가 좋은 영국남자사람배우.

드라마로 뜬 배우가 그렇듯,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셜록을 연기한 배우 이상을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속단이었다. 그는 <셜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셜록>을 시작으로 엄청나게 잘나가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셜록>의 분위기에 취해 나름 잘생긴 배우라고 생각했다. 그야말로 오산이었다. 왜 <셜록>을 봤을 때 겹겹이 쌓인 그의 턱을 보지 못했단 말인가? 목소리가 멋있어서? 아니면 정말 잘생김을 연기했다고? 실제 '베니'는 참 신기하게 생겼다. 왼쪽을 보면 답답한 너드 같고 정면을 보면 부담스럽게 길고 평소 차림새를 보면 그 긴 다리와 좋은 몸매를 경이롭게 잘 숨긴다. (셜록 제작진이 그에게 한 치수 작은 수트와 턱까지 깎을 올린 코트를 입힌 건 정말 신의 한 수.) 미적 감각을 관리하는 신경이 고장난 팬은 애정으로 넘어간다 치더라도 이렇게 범지구적으로 인기가 좋은 걸 보면 의외로 시대를 타고난 '잘생김 연기자' 인지도 모른다. 올해도 그의 여섯 겹 (최근 아홉 겹으로 늘었다카더라) 턱살에 주목!



태 람 의 선택

그 남자, 벤 위쇼(Ben Whishaw)

좋아하는 배우가 많지만 그 중에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배우를 꼽아본다. 얼마 전에 훈남 작곡가와 '남남' 결혼을 한 그 남자, 너무 예쁜 그 남자! 그를 처음 본 건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에서였다. 영화 자체는 그저 그랬다. 영화에서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건 온 몸으로 냄새를 맡는 그의 몸짓, 표정뿐이었다. 나는 무성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주인공의 연기에 빠져들었다! 냄새 맡는 연기를 이렇게 잘 하는 배우가 또 있을까? ㅋㅋ

그는 <아임 낫 데어>에서 밥 딜런이 영감을 받았다는 시인 랭보 역할을 맡았다. 히스 레저, 크리스찬 베일, 케이트 블란쳇, 샬롯 갱스부르 등(와우, 다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이다!^^) 사이에서 그의 비중은 굉장히 적었다. 바스트숏만으로 찍힌 그 정적인 장면들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의 눈빛과 제스처는 너무도 날카롭고 강렬했다!



수 영 의 선택

그 여자, 장만옥!

배우를 잘 몰라 내게 가장 예쁜 여자를 떠올려 보았다. 네이버 프로필을 보니 이제 그녀의 나이, 원이 다 되어간다. 어쨌든 나는 그녀의 토끼 같은 눈과 토끼 같은 이를 좋아한다. 그녀의 눈과 이에 반한 것은 <침밀밀>이었지 싶다. "아휴, 저런 여인이!"

배우 인식센스 같은 것은 거의 작동치 않는 나는 <침밀밀>의 그 여자가 <화양연화>나 <동사서독>의 여인들과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나의 귀요미 여인은 칼도 잘 휘둘렀고, 그림처럼 쓸쓸해 하기도 했다. 벽처럼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지나가버리는 느낌도 괜히 들고, 어쨌든 그녀는 이쁘다. 건강하세요. (*.*)?



료 의 선택

아마 봉주르와 메르시를 제외하곤 단 한마디도 프랑스어를 모르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스런 편견, 불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는 거다. 고등학교 때 배운 불어는 심심하고 어렵기만 했다. 그러다 대학생 때 프랑스 영화를 보고 난 그제야 엄마 말에 수긍했다. 영화 속 배우들이 내뿜은 말소리는 문자 그대로 정말 아름다웠다. 그리고 나는 그 매력적인 발음을 구사하는 프랑스 여배우들에게 푹 빠졌다. 불어를 쓰는 모든 여인네들이 좋았다.

지금 가장 떠오르는 건 엠마뉴엘 드보라는 우리 엄마랑 나이 차이도 안나는 64년 출생의 여인. 아르노 데스플레상이라는 감독 영화 속에서 특히 인상적인 그녀! <킹즈 앤 퀸>에서 자살한 전남친, 정신병원에 들어가있는 전남편, 죽어가는 아버지 사이에서 힘겨워하는 노라역을 연기하는 그녀. 무너져가는 모습조차 우아했다. 비음이 섞여 애교스런 목소리도 큰 매력이다. 사진 말고, 영화 속에서 그 모습과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시길!

윤차장의 선택

나의 그, **크리스찬 베일**. 솔직히 말하자면 40편이 넘는 그의 작품 중에 내가 본 건 4~5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정도면 감히 팬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나의 그’ 타이틀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관심이지만 그에 대한 강렬함만으로 나는 기꺼이 이 왕관을 그에게 씌워주고자 한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1987년 작품인 ‘태양의 제국’ 마지막 장면으로 날아가 본다. 전쟁고아수용소. 상하이에서 난리통에 부모의 손을 놓치고 홀로 전쟁을 겪어야 했던 소년이 텅 빈 잿빛 눈을 하고 서 있다. 부모들은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자 여기 와 있다. 곧 서로를 얼싸안고 오열하는 부모와 아이들. 삼시간에 울음바다가 된 수용소. 그 와중에 소년은 자기 곁을 지나가는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심히 본다. 아니 알아본 건지도 모르겠다. 그녀를 따라 시선이 움직였으므로. 하지만 감정이 없는 인형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내 엄마가 먼저 소년을 알아보았다. “짐!” “짐!” 엄마는 아이를 얼싸안고 운다. 저쪽에서 아이를 찾던 아빠도 달려와 아이를 끌어안는다. 소년은 가만히 그들의 품에 안겨 있다가 조용히 눈을 감을 뿐이다.

열 세 살의 그. 나는 그때 그보다 한 살 많았다. 내 기억으로는 이 영화를 몇 번을 보고 또 본 것 같다. 전쟁이 무엇인지 눈빛 하나로 표현해냈던 어린 크리스찬 베일. 나는 가끔 그에게서 그때 그 텅 빈 잿빛 눈을 보곤 한다.



채운의 선택

깊은 주름, 늘 새로운 노년 – **클린트 이스트우드**(Clint Eastwood, 1930~).

누가 뭐라든,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위대하다. 노년의 위대함이 어떤 양태일 수 있는지를, 난 그에게서 배웠다. 그는 또한 배우다. 배우로서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역시 흠모하고 존경한다. 내 어린 시절, 그는 터벅거리는 말에 올라 서부의 황량한 사막을 떠도는 총잡이로 <주말의 명화> 타임을 독식했다. 시가를 꼬나문 채 입술을 빠죽이 올린 이 서부의 총잡이에 매혹되지 않기란 힘들었다. 바바리맨 주윤발이 등장하기 전까지, 단연 그는 최고의 후카시였다. 그 뒤로 오랜 세월이 흘렀다. 아직도 잊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 자>를 무심코 보다가 나도 모르게 가슴이 울컥해지면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에 대한 경이가 북받쳐오르던 그 순간을! 그는 여전히 총잡이였지만,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 총잡이가 아니었다. 말에 오르다 나뒹굴고 마는, 볼품없고 쭈글쭈글한 ‘퇴물’ 이었다. 아! 젊은 시절 배우로서 구축해온 이미지를 자기 손으로 그렇게 가차 없이 부수다니! 자신의 이미지를 전복하는 노년이라니! 이후 <퍼펙트월드>, <스페이스 카우보이>, <미스틱리버>, <밀리언달러 베이비>, <그랜토리노> 등등에 이르기까지, 노년의 주름과 몸짓에 그토록 많은 것이 담겨 있음을, 누군가에게 노년이란 그 자체로 자유일 수 있음을, 그를 통해 알았다. 위대한 노년이며, 위대한 클린트 이스트우드여!

Editor's choice

[영화] 겨울왕국 Frozen(2013) / 료's choice



살며시 밝혀보자면 료 에디는 90년 말띠다.

내 첫 디즈니의 기억은 라이온킹(1994). 아기자기한 삽입곡하며 아기 사자인 심바를 높이 들어 올리던 장면, 티몬과 품바가 맛보던 벌레들의 화려한 색깔 (벌레 맛이 몹시도 궁금했다!), 심바와 스카의 결투를 비디오 테이프가 닳도록 봤다. 90년대 생 여느 아이들처럼 나 역시 미녀와 야수, 인어공주, 포카혼타스 등 꿈동산 디즈니의 작품을 보며 자란 디즈니 키드!

올 겨울, 정말 간만에 신작 <겨울왕국>을 보며 든 짧은 생각을 적어본다.

영화 초반에 난 적잖이 당황했다. 내가 놀란 건 두 자매의 어린 시절을 그리는 시퀀스. 사고로 부모를 잃는 등의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스토리들이 음악을 따라 노골적으로 날림처리된다. 가만 생각해보면, 내 뇌리에 남아있는 디즈니의 장면들은 스토리와 함께 떠오른다면, 겨울왕국을 보고나선 테마곡이 흐르는 장면들(엘사가 레리꼬~를 외치며 얼음궁전을 셀프시공하는)이 인상깊다. 그러니까 스토리에 음악이 입혀지는 게 아니라, 음악에 스토리를 얹힌 느낌이다. 물론 뮤지컬 형식이니 그럴 수도 있다 싶지만, 내려티브는 어디에? 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 그런데 이거야말로 이 시대에 먹히는 걸까,

겨울왕국은 승승장구 중이다. 이미 디즈니 애니의 정석을 알고 있는 관객들에게 일일이 전개를 짚어가는 건 진부하고 촌스러운 90년대 스타일이다. 오히려 다 보여주지 않고 여남은 얘기를 상상해볼 재미를 남겨두는 게 디즈니의 전략 중 하나라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스토리를 따라갈 수고로움 없이 눈을 사로잡는 영상을 즐기기만 하면 돼서 좋고. 문득, 나는 골방 속 올드한 디즈니의 팬이었단 걸 깨닫게 된다. 역시나 남는 장면은 레리꼬!다. 문득 이 장면을 보다, 노래방에서 놀러왔던 감정을 시원하게 지르는 누군가가 연상됐다. 사람들은 그리고 나 역시, 엘사가 단정하던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는 이제 착한 소녀가 아니며 자유롭다고 외치는 이 직설적인 몸짓과 대사(가사)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후에 겨울왕국, 하면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이 주제곡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다.

Editor's choice

[영드] 라이프 온 마스 Life on Mars(2006) / 혜원's choice



"내 이름은 샘 타일러. 나는 사고를 당했고, 깨어나 보니 1973년이였다. 내가 미친걸까, 혼수상태에서 보는 꿈일까, 아니면 정녕 시간을 거슬러 온 것일까? 어쨌든, 완전히 다른 행성에 착륙한 것만 같다. 이유를 밝혀낸다면,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홍루몽〉을 읽은 김에 몽자류(?) 드라마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라이프 온 마스〉라는 드라마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21세기를 사는 형사 샘 타일러가 수사하는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좌절하던 어느 날 데이빗 보위의 "Life on Mars"를 듣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눈을 떴는데 73년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혼하고도 재밌는 소재. 샘은 그 시대에서도 형사고 자기 자리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시대 사람이 아닌지라 73년은 샘 타일러에게 도저히 납득되는 구석이라곤 없는 시대입니다.

진 헌트로 대표되는 동료 형사들은 증거수사라곤 모르는 과격하고 터프한 사람들이죠. 용의자를 잡으면 냅다 때고 현장에서 담배를 뽕뽕 피면서 (CSI 시대를 살던 샘의 눈에는 기절할 광경!) 성적 농담을 입에 달고 사는 시대. 어쨌든 떨어진 시대에 적응해서 잘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에 이 시대는 샘의 눈에 너무도 수상쩍습니다. 가끔 몸이 안 좋아지면 21세기에 두고 온(?) 가족이나 여친 목소리가 들리고 집에 있으면 너무도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환각들. TV속의 인물은 말을 걸고 환청이 들려오고... 급기야 샘은 '나는 지금 혼수상태에 있고, 이건 모두 내가 꾸는 꿈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 알아냈다고 해도 깨어날 방법은 모르겠고 제멋처럼 살아도 산 게 아닌 상태로 하루하루를 영위하는 샘.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 '저쪽' 삶이 꿈이었던 걸까요? 궁금하시면 드라마를 보시라^^

이달의 선물

데일리 보영쌈 좌컬릿

맛난 생초컬릿 감사합니다^^ 보영쌈 언젠가 또 공부하러 오실 거죠??

영은&제리 굴

규문의 두 자매님들의 알뜰다운 자가선물(?)

우쌈이 보내주신 멧게&오징어 젓갈

이렇게 맛난 멧게젓갈은 침입되~ 아껴가며 먹는 재미가 쏠쏠한 젓갈 두통 감사해요^^

혜선언니 각종 건어물(멸치, 미역, 다시마 그리고 홍합까지!)

당분간은 통영산 건어물들로 규문의 국물맛이 그레이드 업!! 고맙습니다~

은남쌈 귀여운 고구마들

웬지 조그맣게 입 벌린 물개를 닮은 고구마.. 맛있게 먹었습니다^^

효정 오미자, 이 겨울 마지막 사과&사과즙

계절은 속절없이 가는 법! 효정사과와도 당분간 안녕!

그 동안 맛난 사과 잘 먹었습니다, 어머님^^



공부 한다면 이들처럼!

끈질긴 자기해부의 삶, 루쉰/효정

루쉰의 글을 읽으면
어딘가 쿵쿵 쑈쑈대는 느낌이 든다.
특히 그의 잡문(雜文)집인
『무덤』을 읽을 때 그랬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그것은 루쉰의 글 내용 자체가
현재 나 자신에게 느끼는
'노예상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루쉰은 현재를 고통스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
잠에서 깨지 않는 이들을
'노예상태'에 있다고 했다.



루쉰은 백성을 노예에 빚대어 말한다.

백성들은 바로 일정한 주인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백성으로 삼아 주기를-그것이 가당찮은 일이라면 자신들을 소나 말로 삼아주기를 희망했다. 스스로 풀을 찾아 뜯어먹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어떻게 다녀야 할지만을 결정해 주기를 원했다. (『등하만필』, 『무덤』)

주인에게 굽신거리며 살아가는 노예. 루쉰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맡김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이들을 가리켜 노예라고 했다. 노예들은 주인 아래에서 편안함과 익숙함을 뒤집으려하지 않는 이들이다. 내가 나 자신의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불안해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나란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끈질기게 밀고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회피하려 들기 때문이다. 매순간 고통을 망각해 버리고는 무력감을 느낀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노예의식을 깨부수려 '묵묵하고 끈기 있는 투쟁'을 한 루쉰이 존경스럽다고 생각한 것일 거다.

세상에는 무뢰정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요점은 바로 끈기입니다. 듣자 하니 권비의 난이 있은 후 텐진의 건달들, 즉 이른바 무뢰한들이 크게 발호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의 짐을 하나 옮겨 주면서 그들은 2원을 요구하고, 짐이 작다고 말해도 그들은 2원을 내라고 말하고, 길이 가깝다고 말해도 그들은 2원을 내라고 말하고, 옮기지 말라고 말해도 그들은 여전히 2원을 내라고 말합니다. 물론 건달들을 본받을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의 끈기만은 크게 탄복할 만합니다. (「노라는 떠난 후 어떻게 되었는가?」)

루쉰은 염치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버티는 무뢰배 같은 정신, 그 끈기를 탄복할 만하다고 한다. 두려워하지 않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 그래서인지 그의 글에는 무언가를 잡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물고 늘어진 흔적들이 남아 있다. 국수주의, 정인군자(正人君子), 권력자, 중국적인 것, 전통 등 자신을 물고 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예리하게 비판한다. 수염 하나를 가지고도 [강희자전]을 참고하고 역사책을 훑으면서 국수주의자의 근거를 허물어뜨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수염을 예서의 한일자(一) 모양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국수주의자와 개혁가의 허위를 건드린다. 수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루쉰의 생활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에게 글을 쓴다는 것, 공부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 어렵듯하게 느껴진다. 그는 『무덤』에서 자신의 가증스러움을 종종 느끼고 있고, 더 사정없이 자신을 해부한다고 말했다. 그에게 공부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지 않았을까. 그는 부딪히고 깨지고 부딪히고 깨지는 반복들이 일상인 삶을 살았다.

세상에는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들이 많지만, 오로지 스스로 마음 편한 세계를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그저 편한 대로 놓아둘 수 없는 일이어서, 그들에게 약간은 가증스러운 것을 보여주어 그들에게 때때로 조금은 불편을 느끼게 하고, 원래 자신의 세계도 아주 원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려 한다. (「제기」)

글을 쓴다는 게, 공부를 한다는 게 세상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고통스럽게 하고, 끊임없이 불편함을 주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뢰정신으로 그 자신을, 현실을 자각했던 것이 아닐까. 그는 글을 통해서 여전히 잠들어 있는 이들에게, 또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보도록, 결함을 남기도록, 자기 삶의 균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고자 했다.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할 때 스스로를 검열하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게 옳은 행동인지, 저게 옳은 행동인지 판단한다. 그래서 항상 두렵다. 이 두려움은 나 자신을 노예상태에 안주하게 만든다. 루쉰은 글을 쓰면서 많은 망설임과 회상을 느끼면서도 그 자신을 더욱 더 해부하려 했다. 이렇듯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 와장창 깨지는 경험은 직접 몸소 겪어보는 수밖에 없다. "나는 몸소 이 공허 속의 어둔 방에 육박하는 수 밖에 없다"는 루쉰의 말처럼...

분량이 적은 건
2월이 짧아서지 말입니다~
-_-))



월간 규문은 매달 말일 발행됩니다.

발행인 채운 / 편집-디자인 료, 해원, 물만두 / 기술고문 윤차장